

기후위기…나무와 숲이 건네는 지혜에 답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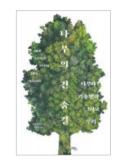
나무의 긴 숨결

페터 볼레벤 지음, 이미옥 옮김

올 봄에도 어김없이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6년 이후 최장 기간 산불로 기록됐다. 이로 인해 2만여 ha, 축구장 약 5000여 개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건조한 기후와 울창한 숲이 산불의 피해를 키웠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확산된 점도 한 요인이다. 적게는 몇 년 많 게는 수십 년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적절치 못한 방식의 육림으로 화마를 입었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밀집의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

"대량 사육하는 동물처럼 대규모 농장에서 자란 자무는 쉽게 병에 걸리며 이러한 질병과 자연재해



로 인해 항상 대대적인 결손 이 생겨난다. 또한 '대량으로 나무를 키우는 농장'에서 나 온 목재의 품질은 원시림에 서 자라는 나무의 품질에 비 해 뒤떨어진다."

기후 변화에 직면한 나무 와 숲 위기를 조명한 책 '나 무의 긴 숨결' 은나무라는 존

재의 가치와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 출신으로 '숲 사용 설명서',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등을 펴 냈던 페터 볼레벤이 저자다. 현재 그는 숲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원시림의 복구,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있다. 어떤 기술과 노력보다 뛰어난 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나무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작용은 나무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양상이 다르고 같은 수종이라도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한 마디로 나무와 숲에 대해 무지하다. 가뭄에 대처하 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 나무를 일컬어 '지혜의 존 재'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건조하고 더운 여름이 되면 나무는 적잖은 난관

에 직면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광합성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나무는 잎 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닫아 여름을 견딘다. 구멍으로 숨을 쉬면 수증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뿌리가 공급할 수분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 잎의 수많은 입을 통해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즉 나무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방식을 통해 비축한 영양물을 섭취하며 겨울을 대비한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가뭄이 지속되면 다른 방식을 도모한다. 다름아닌 잎의 일부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도 뿌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쪽부터 잎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활동을 중단한다. 외견상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겨울이 오기 전까지 활동을 줄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무는 인간들처럼 후손을 위해 정보를 기록한다. 이러한 일은 바로 유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뮌헨 공과대 과학자들은 오래된 포플러를 통해나무들이 경험을 전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 예로 수령이 330년 넘은 나무는 온도 등환경 변화에 적응했고 이는 고스란히 어린 나무의유전자에 기록돼 있다는 것을 말이다.

"멀리 떨어진 가지에 달려 있는 잎을 조사해보면 안다. 가지는 매년 점점 길어지고 이로써 나이를 더 먹는다. 가장 오래된 부분은 줄기 가까이에 있고 가 지는 줄기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며 가장 어린 잎은 나무 꼭대기에 있다." 기후 변화는 숲의 위기로 전이된다. 과거에는 어떤 나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문서화를 통해 기준을 삼았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기준과 표준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 미리 대비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위험에 대비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숲이 저항력을 갖도록 지원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 숲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직결된다. 오늘날 심화되는 기후 위기는 인간과 나무의 관계 를 돌아보게 한다.

저자는 나무가 스스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숲에 개입하는 그 어떤 행위도 이 같은 생태계를 퇴보시키며 나무 스스로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방해한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 제13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임솔아 외 지음

1111111

엄마가 초파리에 대해 각별한 애착을 한다는 모티브는 이색 적이고 그로테스크하다. 바로 임솔아 작가의 '초파리 돌보기' 다. 이 작품이 2022 제13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경위에서 임 작가의 작품에 대해 "소설 안에서 딸이 병든 엄마에 대한 소설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야기와 어우러지며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설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절실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과감하게 답하 고 있는 이 소설"고 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이래 매년 문단뿐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젊은작가 상. 젊은작가상은 지난해까지 54명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며 한국문단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었다. 수상 작품집에는 임솔아 작가를 비롯해 김멜라(저녁놀), 김병운(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김지연(공원에서), 김혜진(미애), 서수진(골드러시), 서이제(두개골의 안과 밖)의 작품이 실렸다. 이들의 작품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담은 치열한 작가 정신이 깃들어 있어 이후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특히 남다른 시선과 독특한 문체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온 임솔아 작가의 수상에 대해 쾌거라는 평가를 했다. 대상을 수상한 임솔아 작가는 지난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 2015년 문학동네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집 '눈과 눈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장편 '최선의 삶' 등을 펴냈다.

또한 작품세계를 경신하며 작년에 이어 다시 수상을 이뤄낸 김멜라, 김지연, 김혜진, 서이제의 단편들은 상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온전한 일상을 꿈꾸는 일곱 편의이야기들은 희망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문학동네·77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디지털, 양극화 공간으로서의 지역, 양 극화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의 기업.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양극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세워진 싱크탱크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양극화'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 다. 그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를 펴냈 다.

언급한 대로 양극화의 세 차원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바로 디지털 격차다. 코로나 이후 감염병 정보 대부분이 디지털로 관리되면서 정보격차가 발생했다.

두 번째 양극화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3~4월 수도권 인구는 2만7500명이 순유입됐으며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유입의 75.5% 이상을 20대가 차지해 지여 고령화와 맞물린 소멸 위험도 가속화하고 있다.

세 번째 양극화는 기업 양극화에서의 일자리와 근로자 문제가 대두된다. 무인시스템이나 AI 도입은 산업구조 재편으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는 이런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 원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미래 이슈를 탐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미래 워크숍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기업휴지 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개발, 글로벌 공정 경쟁 보장을 강조했다.

〈월요일의꿈・1만8000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음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클라인 지음·이순희 옮김

전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세계는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이후 20년 후인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늦어도 30년 안에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달린 기후 정책은 늘 정치 이슈에 막혀 뒷전으로 밀리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이런 문제를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있다.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이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를 펴냈다. 기휘 위기를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첫 번째 도서다

저자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2019년 3월, 세계 청소년들이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로 기휘 시위를 벌였고, 125개국 10만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어른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나서겠다고 모인 아이들이다. 그들은 '제2의 지구는 없다', '우리의 미래를 태워 없애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근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앞으로 가장 큰 충격에 시달리게 될 젊은 세대에게 기후 위기의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전달한다. 또 기후 행동에 뛰어든 십대 활동가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문 용어를 뺀 명쾌한 서술과 시각 자료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과 핵심 논쟁을 정리하며 청소년과 입문 독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열린책들·1만8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생알로에

12日子 単2日4日4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